

##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해결전략과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

임 아 영<sup>†</sup>

이 훈 진<sup>‡</sup>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과학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와 Big 5 성격특성, 갈등해결전략, 커플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해결 전략과 다름 수용 태도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커플 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를 비롯한 자기보고식 척도들(성격 5요인, 갈등해결전략, 커플관계 만족도)을 실시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및 커플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신경증 및 부정적 갈등해결전략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름 수용 태도는 갈등해결 전략보다 커플관계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특성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격특성에 따라서 다름 수용 태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성격특성과 다름 수용 태도의 상관이 여성에 비해 높고, 신경증을 중심으로 성격특성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또한, 남성은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가 두드러졌던 반면, 여성의 경우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성격, 갈등해결전략, 커플관계 만족도

<sup>†</sup>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생, limay84@snu.ac.kr

<sup>‡</sup> 교신저자: 이훈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과학연구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5997, E-mail: hjlee83@snu.ac.kr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커플관계는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의 근원으로 작용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Baumeister & Leary, 1995; Gottman & Levenson, 2000). 또한, 커플관계는 자기와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아를 확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Aron & Aron, 1986). 그러나 커플관계에서 비롯된 불화와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며, 증오와 공격성의 증가, 가정불화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Berger & Hannah, 1999; Coleman et al., 2013). 이렇듯 커플관계가 개인의 적응 및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커플관계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내서 개입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많은 선행연구들은 커플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는 데 주력해왔으며, 성격은 커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 내적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Donnellan et al., 2004; Sayehmiri et al., 2020; Schaffhuser et al., 2014). Big 5 모델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연구되어온 성격 모델로, 신경증(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외향성(extraversion), 성실성(conscientiousness), 친화성(agreeableness)에 이르는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성격특성을 나누고 있다(Costa & McCrae, 1988; Goldberg, 1990). 이 중 커플관계 만족도에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신경증으로, 신경증은 커플관계에서 낮은 관계 만족도 및 낮은 안정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혜숙, 김영희, 2012; Lavee & Ben-Ari, 2004; Malouff et al., 2010; Sayehmiri et al., 2020).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

분노, 우울 같은 부정 정서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하여 갈등 상황에서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 편향된 해석을 하는 등 역기능적인 대처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Finn et al., 2013, 2015). 반면 성실성과 친화성은 대체로 커플관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데(Sayehmiri et al., 2020), 성실성은 안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신뢰로운 특성을 반영하기에 커플관계에서 상호신뢰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Shackelford et al., 2008). 친화성은 타인과 조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특성으로, 솔직함, 이타성, 겸손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친사회적 특성이 커플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Karney & Bradbury, 1995). 이를 뒷받침하듯 성실성과 친화성은 커플관계 안정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성실성과 친화성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만족지연이 어려운 경향이 있으며, 혼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Schmitt, 2004; Schmitt & Buss, 2000)

한편, 개방성 및 외향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지적이며,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MaCrae, 1996). 따라서 커플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의 진취적이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특성, 새로운 경험을 선호하는 경향은 안정적인 커플관계를 영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시사된다(Karney & Bradbury, 1995). 이에 높은 개방성은 성실성과 조합되어야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다

(Buss & Shackelford, 1997). 외향성도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이는데, 일각의 연구에서는 외향성이 커플관계 만족도 및 친밀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Kelly & Conley, 1987; White et al., 2004), 외향성이 높은 이혼률과 관련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Eysenck, 1980; Karney & Bradbury, 1995). 이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폭넓은 대인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커플관계에 대한 중요도나 헌신 정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격이 커플관계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기는 하나, 성격은 생물학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행동 경향성으로, 단기간에 성격을 변화시키기란 상당히 어렵다(Johnson, 2005; McCrae & Costa, 1994). 따라서 성격과 같이 안정적인 심리적 속성보다,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 방식 같은 커플 간의 상호작용 변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통적인 행동주의에 입각한 커플치료(Traditional Behavioral Couple Therapy: 이하 TBCT)도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개입을 중시해 왔다(박영화, 고재홍, 2005; Jacobson & Christensen, 1996; Schneewind & Gehard, 2002). 친밀한 커플관계라도 갈등은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갈등을 얼마나 원만하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김경희, 2008, 연수진, 서수균, 2013). 갈등 상황에서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면 갈등을 해결한 후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는 반면,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은 갈등을 악화시키거나, 상호간에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장춘미, 2001). 선행연구에서 긍정

적인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관계만족도가 높고,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관계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화, 고재홍, 2005; Cramer, 2000). Big 5 성격특성과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친화성은 협력적인 갈등해결전략을 가장 잘 예측하는 반면(Park & Antonioni, 2007; Wood & Bell, 2008),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역기능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onnellan et al., 2004; Solomon, 2014).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성취 욕구로 인하여 경쟁적인 전략을 시도할 수 있으나,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협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시사된다(Donnellan et al., 2004; Piedmont, McCrae, & Costa, 1991).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보상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하여, 순응 및 회피 전략은 적게 사용하고, 경쟁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나, 타인과의 정보 공유를 선호하는 면이나 높은 긍정 정서 등은 협동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시사된다(Cunningham, 1988; Park & Antonioni, 2007; Wood & Bell, 2008).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방성은 협력 전략과는 정적 상관을, 회피 전략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Park & Antonioni, 2007). 이와 같이 성격과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갈등해결전략은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연결 기제로 여겨져 왔다(Taggart et al., 2019; Vater & Schröder - Abé, 2015).

그러나 전통적인 행동치료에 수용의 요소를 강화한 통합적 행동 커플치료(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이하 IBCT)에서는 커플관계가 악화되는 주요 원인이 잘못된 대처방식보다는, 서로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갈등의 주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는 의사소통훈련이나 협력적인 갈등 해결방식만으로는 해소가 어렵다. Jacobson과 Christensen(1996)은 상대적으로 젊고, 정서적 유대가 강하며, 화해나 타협의 의지가 있는 커플이라면, 전통적인 행동치료를 통해 문제 해결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성공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서로 타협하거나 협력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커플이라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로의 차이와 양립 불가능성,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에 대한 수용을 고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렇듯 수용의 역할을 강조한 IBCT는 수용과 변화의 통합을 지향하는 심리치료계의 광범위한 움직임과 동일한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Hayes et al., 1994; Mairal, 2015). 심리치료 제 3의 물결을 주도한 대표적인 수용 중심 치료로는 ACT(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Hayes et al., 1999), DBT(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 Linehan, 1993), MBCT(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Segal et al., 2002) 등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에서 말하는 수용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비록 부정적일지라도 이를 없애거나 회피하려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IBCT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수용 개념을 기반으로 하나, 다른 수용 중심 심리치료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이 광범위한 개인의 사적 경험을 수용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IBCT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파트너의 행동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IBCT는 커플 간 타협하기 힘든 갈등, 극복할 수 없는 차이에 대한 처방으로 수용을 제시하였으며, 행동수정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행동치료에 비해 문제의 재발률이 낮고, 치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ucom et al., 2015; Christensen et al., 2006; Sevier et al., 2015). 다만, IBCT가 행동변화 전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해결 기술에 대한 개입 이전에 수용 촉진 작업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커플이 서로 협력하고 타협할 용의가 없는 상태에서 행동변화를 시도한다면 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우나, 수용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후에 긍정적인 갈등해결방식을 시도하면, 서로 협력하면서 성공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시사되나, 아직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이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비교하거나, 이들의 선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와 갈등해결 전략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IBCT의 수용 개념을 충실히 반영한 측정도구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IBCT 이론에 기반하여 커플관계에서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s Scale: 이하 ADCRS)가 개발되었다(임아영, 이훈진, 2020). 이 연구에서 다름에 대한 수용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름을 통해 친밀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ADCRS는 다섯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이 밝혀졌다. 첫 번째 요인인 '다름에 대한 인내'는 서로의 차이와 이로 인한 불편을 견디는 능력을 의미하며, 두 번째 요인인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는 상대의 관점에서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고, 상대의 노력과 고통을 이해하는 태도를 말한다. 세 번째 요인인 '다름에 대한 존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일컫으며, 네 번째 요인인 '다름을 통한 성장'은 다름의 긍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름을 통해 더욱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요인은 다름으로 인해 파생된 부정적 생각 및 정서로부터 거리를 두고 비판단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렇듯 다름에 대한 수용 개념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다름으로 인한 불편을 참고 견디는 차원의 소극적 수용을 넘어서, 더욱 친밀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방향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제안되었다(임아영, 이훈진, 2020). 이 연구에서 ADCRS를 통해 측정된 다름 수용 태도는 커플관계 만족도와 .71의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ADCRS를 활용하여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고, 다름 수용 태도를 포함하여 커플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인 성격,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성격특성과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의 관련성을 예측해보자면,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

은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편과 갈등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쉽게 경험하고, 이를 견디기 힘들어 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와 신경증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성 및 친화성은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과 관용, 다양성에 대한 수용 등 친사회적인 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며(Butrus & Witenberg, 2013; Strauss et al., 2003), 이러한 특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잘 수용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방성, 친화성과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정적 상관을 보이리라 기대된다. 또한, 성실성이 높을수록 커플관계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에, 다름 수용 태도와 성실성도 정적 상관을 보이리라 기대된다.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와 Big 5 성격특성, 갈등해결전략 및 커플관계 만족도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모델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BCT 이론에 입각하여, 개인의 성격특성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가 선행 연구에서 주로 검증되어온 갈등해결전략에 비해 커플관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더불어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이 매개하는지,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 앞서 수용적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IBCT의 제안처럼, 다름 수용 태도가 행동 차원의 갈등해결 전략에 선행하여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

하였다.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플 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개방성, 성실성, 친화 성과는 정적 상관을, 신경증과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둘째,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성격특성 및 갈등해결전략을 통제 한 후에도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300명으로, 전문 리서치 업체(한국리서치)를 통해 모집하였다. 만 18세~60세의 성인으로 현재 커플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 적어도 1개월 이상 커플관계를 유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1개월 이상은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임아영, 이훈진, 2020)의 선정 기준을 따른 것으로, 커플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고자 비교적 짧은 교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참여자들은 연구 모집문을 본 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리서치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례비를 받았다. 총 30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전체 참여자 중 남자는 151명(50.3%), 여자는 149명(49.7%)이었다. 전체 평균 연령은 39.6세( $SD=11.24$ ), 남성의 평균 연령은 39.8세( $SD=11.24$ ), 여성의 평균 연령은 39.3세( $SD=11.26$ )로, 성별에 따른 연령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t(298) = .41, p = .686, \text{Cohen's } d =$

.004. 참여자 중 미혼자는 122명(40.7%)으로 평균 연령은 30.1세( $SD = 7.94$ )였고, 기혼자는 159명(53.0%)으로 평균 연령은 45.3세( $SD = 8.19$ )였으며, 기타(이혼, 별거, 사별 등) 집단은 19명(6.3%)으로 평균 연령은 51.74( $SD = 8.19$ )였다. 결혼상태에 따른 연령 차는 유의하였다,  $F(2, 297) = 149.02, p < .001, \text{부분 } \eta^2 = .501$ . 참여자 중 현재 커플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 242명(80.7%)으로 평균 연령은 40.81세( $SD = 10.88$ )였고, 현재 커플이 아닌 집단은 58명(19.3%)으로 평균 연령 34.29세( $SD = 11.29$ )였으며, 두 집단의 연령 차는 유의하였다,  $t(298) = 4.07, p < .001, \text{Cohen's } d = .571$ .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았다(IRB No. 1911/003-025).

### 측정 도구

####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 Scale: ADCRS)

임아영과 이훈진(2020)이 IBCT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한 총 22문항, 7점 리커트 형식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한다. 다름에 대한 인내,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다름에 대한 존중, 다름을 통한 성장,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의 다섯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서로 달라서 생기는 불편을 감당하기 어렵다”, “서로 다른 점을 맞춰 가기 위해 파트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 “서로 달라서 문제가 생길 때, 나를 사랑한다면 파트너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차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면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 성격 5요인 척도(NEO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NEO PI-R 단축형)

Big 5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Costa와 Macrae(1992)가 개발한 NEO-PI-R 척도를 박명옥(2007), 박미선(2011)을 토대로, 이석동(2017)이 재구성한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에 이르는 다섯 개의 성격 요인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석동(2017)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77~.8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외향성 .85, 신경증 .70, 개방성 .83, 친화성 .57, 성실성 .81로 나타났다.

#### 갈등해결전략 척도(Modified 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II)

Rahim(1983)이 개발한 갈등 척도를 Wilmot과 Hocker(2001)가 5요인 25문항으로 수정하고, 국내에서 Hong(200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회피, 지배(경쟁), 타협, 양보(순응), 협력(통합)의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타협과 협력을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회피와 지배를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2,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0으로 나타났다.

#### 커플관계 만족도 척도(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Scale)

커플관계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성과 한덕웅(2005)이 개발한 이

성관계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자 및 기혼자를 모두 포함하기에, 원척도의 이성친구라는 용어를 파트너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 커플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현재 파트너를, 현재 커플이 아니라면 과거 1개월 이상 커플이었던 파트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파트너를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자료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 Hayes(2013)의 PROCESS macro 3.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 및 척도별 기본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 -검증 및 공분산분석,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상관계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isher's Z transform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커플관계 다른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양측 검정  $p < .05$  수준으로 하였다. 성격특성이 다른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커플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모델 6번을 활용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횟수를 5,000번으로 설정하여 95% 신뢰구간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하다고 보았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표 1에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

령과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과 긍정적 갈등해결전략과의 상관은 유의하였다,  $r(300) = -.23, p < .001$ . 각 척도 별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름 수용 태도 총점과 다름에 대한 인내, 다름에 대한 존중, 개방성,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종속변인	전체(N=300)		남(n=151)		여(n=149)		r	Cohen's d
	M	SD	M	SD	M	SD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	101.4	15.23	103.96	15.14	98.80	14.93	2.97**	.343
다름에 대한 인내	21.88	6.17	22.81	5.78	20.93	6.43	2.67**	.308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21.26	3.20	21.38	3.25	21.13	3.15	0.69	.078
다름에 대한 존중	19.12	4.65	20.03	4.60	18.19	4.53	3.48**	.403
다름을 통한 성장	24.28	4.32	24.75	4.22	23.81	4.39	1.91	.218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14.86	2.41	14.98	2.45	14.74	2.36	0.87	.100
Big 5 성격특성								
외향성	13.30	3.22	13.56	2.87	13.04	3.53	1.39	.162
신경증	11.40	2.98	10.89	2.96	11.92	2.92	3.04**	.350
개방성	13.15	3.11	13.53	2.76	12.77	3.40	2.12*	.245
친화성	14.36	2.18	14.33	1.96	14.4	2.38	0.26	.032
성실성	15.17	2.61	14.91	2.52	15.43	2.69	1.71	.200
갈등해결전략								
타협	16.77	2.57	16.95	2.45	16.59	2.69	1.20	.140
협력	17.69	2.73	18.09	2.50	17.28	2.90	2.62**	.299
양보	17.57	2.96	18.35	2.54	16.79	3.16	4.74***	.544
회피	15.94	2.80	16.07	2.54	15.81	3.04	0.79	.093
지배	12.81	3.84	12.55	3.70	13.08	3.96	1.20	.138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34.46	4.80	35.04	4.50	33.87	5.03	2.13*	.245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28.75	4.96	28.62	5.04	28.89	4.90	0.48	.054
커플관계 만족도	33.04	6.77	34.23	6.09	31.84	7.21	3.10**	.358

주.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타협 + 협력, 부정적 갈등해결전략=회피 + 지배

\*  $p < .05$ , \*\*  $p < .01$ , \*\*\*  $p < .001$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관계 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고, 신경증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후 분석에서 연령과 성별을 통제된 뒤 분석을 실시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살펴보았다. 연령 및 성별 통제 시, 결혼상태에 따라 다름에 대한 인내와 커플관계 만족도 차이가 유의하였다, 각각  $F(2, 295) = 6.36, p = .002$ , 부분  $\eta^2 = .041$ ,  $F(2, 295) = 4.94, p = .008$ , 부분  $\eta^2 = .032$ . 사후 검정 결과, 기혼 집단이 기타(이혼, 별거 등) 집단에 비해 다름에 대한 인내와 커플관계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 성별 통제 시, 커플관계를 가장 오래 유지해 본 기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최장 유지 기간이 20년 이상인 집단이 1년 미만인 집단보다, 다름에 대한 인내와 성실성, 커플관계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각각  $F(5, 292) = 3.81, p = .002$ , 부분  $\eta^2 = .061$ ,  $F(5, 292) = 3.12, p = .009$ , 부분  $\eta^2 = .051$ ,  $F(5, 292) = 2.32, p = .043$ , 부분  $\eta^2 = .038$ . 반면, 가구소득 및 학력, 현재 교제 중인 커플의 교제기간 및 자녀 유무에 따른 다름 수용 척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와 성격특성, 갈등해결전략, 커플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연령 및 성별을 통제하고, 척도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신경증과는 유의한 부정적 상관을 보였고,  $r(296) = -.16, p = .005$ ,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각각  $r(296) = .12, p = .038$ ,  $r(296) = .23, p < .001$ ,  $r(296) = .26, p < .001$ . 다섯 개의 하위 요인 중에서 다름에 대한 인내가

신경증과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였고,  $r(296) = -.21, p < .001$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는 친화성과,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는 성실성과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각각  $r(296) = .29, p < .001$ .  $r(296) = .38, p < .001$ .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r(296) = .30, p < .001$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r(296) = -.30, p < .001$ . 하위 요인 중 다름에 대한 인내와 다름에 대한 존중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과,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와 다름을 통한 성장,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과 더 큰 상관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상관계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은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와 친화성, 성실성 간의 상관이 각각  $r(148) = .37 (p < .001)$ ,  $r(148) = .42 (p < .001)$ 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둘 다  $r(146) = .11 (p = .167)$ 로 유의하게 낮은 상관을 보였다, 각각 Fisher's  $Z = 2.30, p = .022$ , Fisher's  $Z = 2.83, p = .005$ . 또한, 남성의 경우,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와 갈등해결전략 하위 척도 중 지배 요인 간 상관이  $r(148) = -.45 (p < .001)$  부정적 갈등해결전략과의 상관이  $r(148) = -.42 (p < .001)$ 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각각  $r(146) = -.16 (p = .051)$ ,  $r(146) = -.19 (p = .024)$ 로 유의하게 낮은 상관을 보였다, 각각 Fisher's  $Z = -2.73, p = .006$ , Fisher's  $Z = -2.18, p = .033$ .

####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와 성격특성, 갈등해결전략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 (N=300)

	1	1-1	1-2	1-3	1-4	1-5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																		
1-1	.85 <sup>***</sup>	-																	
1-2	.65 <sup>***</sup>	.35 <sup>***</sup>	-																
1-3	.70 <sup>***</sup>	.64 <sup>***</sup>	.18 <sup>**</sup>	-															
1-4	.74 <sup>***</sup>	.44 <sup>***</sup>	.53 <sup>***</sup>	.27 <sup>***</sup>	-														
1-5	.58 <sup>***</sup>	.29 <sup>***</sup>	.55 <sup>***</sup>	.14 <sup>*</sup>	.51 <sup>***</sup>	-													
2	.08	.07	.03	-.09	.19 <sup>*</sup>	.14 <sup>*</sup>	-												
3	-.16 <sup>**</sup>	-.21 <sup>***</sup>	-.08	-.10	-.03	-.13 <sup>*</sup>	-.08	-											
4	.12 <sup>*</sup>	.01	.08	-.05	.26 <sup>***</sup>	.23 <sup>***</sup>	.46 <sup>***</sup>	-.04	-										
5	.23 <sup>***</sup>	.13 <sup>*</sup>	.24 <sup>***</sup>	.05	.22 <sup>***</sup>	.29 <sup>***</sup>	.23 <sup>***</sup>	-.05	.23 <sup>***</sup>	-									
6	.26 <sup>***</sup>	.15 <sup>**</sup>	.38 <sup>***</sup>	-.04	.27 <sup>***</sup>	.34 <sup>***</sup>	.36 <sup>***</sup>	-.05	.33 <sup>***</sup>	.42 <sup>***</sup>	-								
7	.16 <sup>**</sup>	.05	.27 <sup>***</sup>	-.10	.22 <sup>***</sup>	.29 <sup>***</sup>	.12 <sup>*</sup>	-.07	.25 <sup>***</sup>	.25 <sup>***</sup>	.35 <sup>***</sup>	-							
8	.38 <sup>***</sup>	.25 <sup>***</sup>	.39 <sup>***</sup>	.08	.39 <sup>***</sup>	.39 <sup>***</sup>	.20 <sup>***</sup>	-.10	.26 <sup>***</sup>	.31 <sup>***</sup>	.38 <sup>***</sup>	.62 <sup>***</sup>	-						
9	.28 <sup>***</sup>	.17 <sup>**</sup>	.23 <sup>***</sup>	.07	.25 <sup>***</sup>	.39 <sup>***</sup>	-.03	-.04	.10	.41 <sup>***</sup>	.29 <sup>***</sup>	.38 <sup>***</sup>	.44 <sup>***</sup>	-					
10	-.13 <sup>*</sup>	-.22 <sup>***</sup>	-.03	-.12 <sup>*</sup>	-.06	.12 <sup>*</sup>	-.02	.14 <sup>*</sup>	-.04	.17 <sup>**</sup>	.02	.13 <sup>*</sup>	-.04	.32 <sup>***</sup>	-				
11	-.30 <sup>***</sup>	-.26 <sup>***</sup>	-.18 <sup>**</sup>	-.38 <sup>***</sup>	-.04	-.18 <sup>**</sup>	.26 <sup>***</sup>	.16 <sup>**</sup>	.16 <sup>**</sup>	-.07	.00	.16 <sup>**</sup>	-.04	-.22 <sup>***</sup>	.10	-			
12	.30 <sup>***</sup>	.17 <sup>**</sup>	.37 <sup>***</sup>	-.01	.34 <sup>***</sup>	.38 <sup>***</sup>	.18 <sup>**</sup>	-.10	.28 <sup>***</sup>	.31 <sup>***</sup>	.40 <sup>***</sup>	.89 <sup>***</sup>	.91 <sup>***</sup>	.46 <sup>***</sup>	.05	.06	-		
13	-.30 <sup>***</sup>	-.32 <sup>***</sup>	-.16 <sup>**</sup>	-.36 <sup>***</sup>	-.07	.19 <sup>**</sup>	.20 <sup>**</sup>	.10	.04	.01	.04	.20 <sup>***</sup>	-.05	.01	.64 <sup>***</sup>	.83 <sup>***</sup>	.08	-	
14	.56 <sup>***</sup>	.54 <sup>***</sup>	.39 <sup>***</sup>	.30 <sup>***</sup>	.42 <sup>***</sup>	.33 <sup>***</sup>	.15 <sup>**</sup>	-.26 <sup>***</sup>	.12 <sup>*</sup>	.14 <sup>*</sup>	.17 <sup>**</sup>	.17 <sup>**</sup>	.33 <sup>***</sup>	.21 <sup>***</sup>	-.14 <sup>*</sup>	-.12 <sup>*</sup>	.28 <sup>***</sup>	-.18 <sup>**</sup>	-

1.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총점, 1-1. 다름에 대한 인내, 1-2.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1-3. 다름에 대한 존중, 1-4. 다름을 통한 성장, 1-5.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2. 외향성, 3. 신경증, 4. 개방성, 5. 친화성, 6. 성실성, 7. 타협, 8. 협력, 9. 양보, 10. 회피, 11. 지배, 12.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13.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14. 커플관계 만족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3. 성격특성, 갈등해결전략,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 $\beta$	2단계 $\beta$	3단계 $\beta$	4단계 $\beta$	$R^2$	$\Delta R^2$	변화량 $F$
전체( $N=300$ )					.036		3.64*
연령	-.01	-.02	.04	.05			
성별	-.18**	-.14*	-.10	-.03			
결혼상태	-.06	-.08	-.09	-.06			
외향성		.07	.12	.11	.136	.100	6.74***
신경증		-.24***	-.19**	-.16**			
개방성		.03	-.01	-.01			
친화성		.07	.04	-.02			
성실성		.09	.00	-.05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25***	.13*	.204	.069	12.49***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18**	-.02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				.50***	.390	.185	87.52***
남성( $n=151$ )					.025		1.90
연령	.19	.19	.17*	.19*			
결혼상태	-.13	-.06	-.05	-.03			
외향성		.05	.11	.11	.302	.277	11.37***
신경증		-.41***	-.31***	-.28***			
개방성		.05	.04	.05			
친화성		.25**	.24**	.18*			
성실성		.12	.08	.00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08	.04	.356	.054	5.89**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25**	-.14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				.29**	.401	.045	10.43**
여성( $n=149$ )					.044		3.32*
연령	-.12	-.17	-.03	-.05			
결혼상태	-.11	-.13	-.17	-.13			
외향성		.12	.14	.10	.111	.068	2.15
신경증		-.19*	-.17*	-.16*			
개방성		.04	-.01	-.05			
친화성		-.03	-.07	-.09			
성실성		.06	-.03	.00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32***	.16*	.193	.082	7.05**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13	.01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				.58***	.481	.288	76.62***

\*  $p < .05$ , \*\*  $p < .01$ , \*\*\*  $p < .001$ .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연령, 성별, 결혼상태를 통제한 뒤, 2단계에서 Big 5 성격특성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10.0%의 추가적인 설명량을 보였다. 3단계에서 긍정적,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투입하였고, 두 변인에 의한 추가적 설명량은 6.9%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 커플관계 다름 수용태도를 투입함으로써, 다름 수용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부가적인 설명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름 수용 태도는 18.5%의 추가적 설명량을 보였다. 최종 4단계에서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신경증,  $\beta = -.16, p = .001$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beta = .13, p = .020$ ,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였고,  $\beta = .50, p < .001$ , 투입된 변인들 중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척도 점수 및 척도 간 상관계수 차이가 유의하였기에 남녀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연령과 결혼상태를 통제한 뒤, 2단계에서 Big 5 성격특성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성격특성에 의한 추가적 설명량이 27.7%였고, 여성은 6.8%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긍정적,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의한 추가적 설명량은 남성의 경우 5.4%였고, 여성은 8.2%였다. 4단계에서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에 의한 추가적 설명량은 남성이 4.5%였고, 여성은 28.8%였다. 남성의 경우, 최종 4단계에서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신경증,  $\beta = -.28, p < .001$ , 친화성,  $\beta = .18, p = .021$ ,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였다,  $\beta = .29, p < .001$ . 여성의 경우, 최종 4단계에서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신경증,  $\beta = -.16, p = .012$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beta = .16, p = .026$ ,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였다,  $\beta = .58, p < .001$ .

추가적으로,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미혼 집단( $n = 120$ )과 기혼 집단( $n = 161$ )을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연령을 통제하였고, 2단계에서 Big 5 성격특성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미혼 집단의 경우 성격특성에 의한 추가적 설명량은 12.6%, 기혼 집단은 9.7%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긍정적,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의한 추가적 설명량은 미혼 집단이 5.2%, 기혼 집단이 10.6%로 나타났으며, 4단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에 의한 추가적 설명량은 미혼 집단이 11.4%, 기혼 집단이 20.0%로 나타났다. 최종 단계에서 커플관계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미혼 집단의 경우 신경증  $\beta = -.22, p = .016$ , 및 다름 수용 태도였다,  $\beta = .42, p = .000$ , 기혼 집단의 경우, 신경증,  $\beta = -.15, p = .021$ , 긍정적 갈등해결 전략,  $\beta = .17, p = .023$ , 다름 수용 태도였다,  $\beta = .51, p < .001$ .

#### 성격특성과 커플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전체 표본 및 남녀를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경증이 공통적으로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으로 나타났으므로, 신경증을 중심으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매개모형을 그림 1, 2에 제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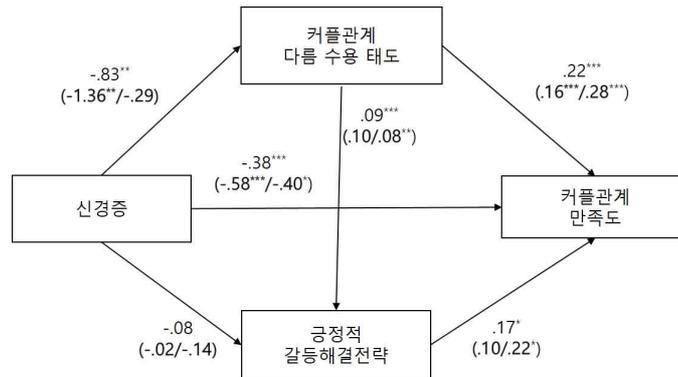


그림 1. 신경증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른 수용 태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주. 효과계수는 비표준화 계수. 괄호 안(남성/여성).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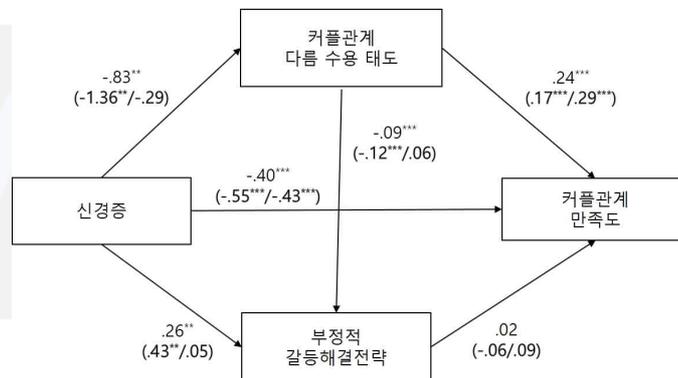


그림 2. 신경증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른 수용 태도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주. 효과계수는 비표준화 계수. 괄호 안(남성/여성).

\*  $p < .05$ , \*\*  $p < .01$ , \*\*\*  $p < .001$ .

에 제시하였다. 성별을 통제하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다른 수용 태도와 긍정적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 신경증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였다,  $B = -.38$ ,  $SE = .11$ ,  $p < .001$ , 신경증은 다른 수용 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B = -.83$ ,  $SE = .29$ ,  $p < .001$ , 신경증이 다른 수용 태도를 거쳐 커플관계 만족도로 이

어지는 경로에서 다른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B = -.21$ ,  $SE = .08$ , 95% CI [-.374~-0.062]. 다른 수용 태도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이어지는 순차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B = -.02$ ,  $SE = .01$ , 95% CI [-.039~-0.002]. 반면, 신경증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B = -.08$ ,  $SE = .09$ ,  $p = .353$ , 긍정적 갈등해결

표 4. 신경증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전체( <i>N</i> =300)				
신경증 → 다름 수용 → 커플관계 만족도	-.213	.079	-.374	-.062
신경증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관계 만족도	-.014	.020	-.062	.019
신경증 → 다름 수용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관계만족도	-.016	.010	-.039	-.002
남성( <i>n</i> =151)				
신경증 → 다름 수용 → 커플관계 만족도	-.219	.085	-.397	-.066
신경증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관계 만족도	-.002	.023	-.047	.053
신경증 → 다름 수용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관계만족도	-.015	.018	-.060	.013
여성( <i>n</i> =149)				
신경증 → 다름 수용 → 커플관계 만족도	-.080	.136	-.341	.187
신경증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관계 만족도	-.030	.035	-.107	.031
신경증 → 다름 수용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관계만족도	-.005	.010	-.030	.012
전체( <i>N</i> =300)				
신경증 → 다름 수용 → 커플관계 만족도	-.196	.081	-.360	-.040
신경증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관계 만족도	.006	.020	-.031	.052
신경증 → 다름 수용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관계만족도	.002	.006	-.010	.014
남성( <i>n</i> =151)				
신경증 → 다름 수용 → 커플관계 만족도	-.224	.090	-.418	-.064
신경증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관계 만족도	-.028	.041	-.114	.052
신경증 → 다름 수용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관계만족도	-.010	.016	-.048	.017
여성( <i>n</i> =149)				
신경증 → 다름 수용 → 커플관계 만족도	-.081	.146	-.370	.226
신경증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관계 만족도	.004	.019	-.029	.053
신경증 → 다름 수용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관계만족도	.002	.005	-.007	.013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번, LLCI: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boot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전략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B =$             다름 수용 태도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01$ ,  $SE = .02$ , 95% CI  $[-.061 \sim .019]$ .            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 신경증의 직접효과,

$B = -.40, SE = .11, p < .001$ , 그리고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B = -.10, SE = .08, 95\% CI [-.350 \sim -.040]$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및 다름 수용 태도에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이어지는 순차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  $B = .01, SE = .02, 95\% CI [-.031 \sim .052]$ ,  $B = .002, SE = .01, 95\% CI [-.010 \sim .014]$ .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남녀를 구분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의 경우, 신경증이 다름 수용 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B = -1.36, SE = .41, p = .001$ , 신경증에서 커플관계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포함 모델:  $B = -.22, SE = .09, 95\% CI [-.397 \sim -.066]$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포함 모델:  $B = -.22, SE = .09, 95\% CI [-.418 \sim -.064]$ . 그러나 여성의 경우 신경증이 다름 수용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B = -.29, SE = .41, p = .502$ ,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포함 모델:  $B = -.08, SE = .14, 95\% CI [-.341 \sim .187]$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포함 모델:  $B = -.08, SE = .15, 95\% CI [-.370 \sim .226]$ .

추가적으로, 신경증 외의 성격특성이 다름 수용 태도 및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커플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신경증 모델과 동일하게 성격특성 별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향성은 커플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B = .20, SE = .10, p = .051$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거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 = .04, SE = .02, 95\% CI [0.02 \sim .082]$ . 개방성은 커플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B = .06, SE = .11, p = .544$ , 다름 수용 태도 및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거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각각  $B = .16, SE = .08, 95\% CI [0.007 \sim .321]$ ,  $B = .37, SE = .08, p < .001$ ,  $B = .06, SE = .03, 95\% CI [0.010 \sim .131]$ . 친화성 및 성실성의 경우, 각 성격특성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  $B = -.06, SE = .15, p = .672$ ,  $B = -.09, SE = .13, p = .48$ . 그러나 친화성과 성실성은 다름 수용 태도를 거쳐 간접적으로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각각  $B = .36, SE = .11, 95\% CI [0.144 \sim .568]$ ,  $B = .32, SE = .09, 95\% CI [0.152 \sim .501]$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각각  $B = .09, SE = .05, 95\% CI [0.016 \sim .195]$ ,  $B = .10, SE = .04, 95\% CI [0.024 \sim .191]$ . 다름 수용 태도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이어지는 순차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각각  $B = .02, SE = .01, 95\% CI [0.004 \sim .054]$ ,  $B = .02, SE = .01, 95\% CI [0.005 \sim .045]$ .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친화성,  $B = 2.76, SE = .60, p < .001$ , 성실성이 다름 수용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B = 2.53, SE = .45, p < .001$ , 해당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각각  $B = .49, SE = .13, 95\% CI [0.259 \sim .756]$ ,  $B = .47, SE = .11, 95\% CI [0.277 \sim .706]$ . 반면, 여성의 경우, 외향성,  $B = .30, SE = .11, p = .007$ , 개방성,  $B = .37, SE = .11, p = .002$ , 친화성,  $B = .58, SE = .03, p = .006$ , 성실성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B = .62, SE = .14, p < .001$ , 해당 성격

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각각 외향성 모델:  $B = .06$ ,  $SE = .10$ , 95% CI [.004~.137], 개방성 모델:  $B = .09$ ,  $SE = .05$ , 95% CI [.012~.199], 친화성 모델:  $B = .16$ ,  $SE = .07$ , 95% CI [.037~.320], 성실성 모델:  $B = .15$ ,  $SE = .07$ , 95% CI [.027~.297]. 한편, 상기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미혼 집단과 기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유의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였다. 미혼 집단의 경우, 개방성 및 친화성, 성실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개방성 모델:  $B = .16$ ,  $SE = .09$ , 95% CI [.001~.340], 친화성 모델:  $B = .41$ ,  $SE = .09$ , 95% CI [.170~.701], 성실성 모델:  $B = .32$ ,  $SE = .11$ , 95% CI [.129~.550]. 기혼 집단의 경우,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외향성 모델:  $B = .07$ ,  $SE = .04$ , 95% CI [.004~.168], 개방성 모델:  $B = .09$ ,  $SE = .05$ , 95% CI [.010~.211], 친화성 모델:  $B = .18$ ,  $SE = .08$ , 95% CI [.046~.348]. 또한, 성실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다름 수용 태도,  $B = .30$ ,  $SE = .14$ , 95% CI [.057~.595], 및 긍정적 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였고,  $B = .18$ ,  $SE = .08$ , 95% CI [.046~.356], 다름 수용 태도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이어지는 순차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B = .02$ ,  $SE = .01$ , 95% CI [.002~.058].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커플관계에서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가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구하고, 커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적인 성격특성 및 갈등해결전략과 다름 수용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와 Big5 성격특성, 갈등해결전략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친화성, 개방성, 성실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신경증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의 하위 요인 중 다름에 대한 인내가 신경증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다름에 대한 인내와 다름에 대한 존중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반면,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다름을 통한 성장은 친화성, 성실성, 긍정적 갈등해결전략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IBCT에서 말하는 수용이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것과 더불어, 커플이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의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Jacobson & Christensen, 1996). IBCT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도 소극적 차원의 수용 요소와 적극적 차원의 수용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상대의 행동을 참고 견디는 능력에 해당하는 다름에 대한 인내와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내려놓는 것에 해당하는 다름에 대한 존중이 소극적 차원의 수용에 가장

다면,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와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다름을 통한 성장 요인은 커플이 더욱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요소와 긍정적인 방향성을 포함하는 적극적 차원의 수용 요소로 볼 수 있다(임아영, 이훈진,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경증과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같은 변인들은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고통에 대한 감내를 어렵게 하며, 파트너를 비난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부적응적 대처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친화성, 성실성,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같은 변인들은 관계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적응적인 대처를 나타내는 데 기여하며, 적극적 수용 요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다름 수용 태도와 성격특성, 갈등해결전략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름 수용 태도는 Big 5 성격특성과 갈등해결전략의 효과를 배제하고 18.5%의 부가적인 설명량을 보였으며, 갈등해결전략에 비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고, 그 영향력이 갈등해결전략 보다 우세한 것을 확인하였다. IBCT는 전통적인 행동주의 원리에 따라 커플의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수용 촉진 전략을 통해 수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행동변화 전략에 선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로 IBCT와 TBCT의 치료효과를 비교함으로써, IBCT 모델의 지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Baucom et al., 2015; Baucom et al., 2011; Jacobson & Christensen,

1996; Sevier et al., 2015). 그러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는 치료자 변인같이 제 3의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에, 수용 태도와 다른 행동 전략을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또한, IBCT가 전통적인 행동주의 원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수용 작업이 선행된 후에 의사소통기술 및 문제해결전략 향상과 같은 행동 변화에 대한 개입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IBCT와 TBCT의 치료효과를 비교하는 접근법은 자칫 수용과 행동변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무리한 시도를 내려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변화가 떠오를 것이라는 IBCT의 전제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김중술 등, 2002). 본 연구는 ADCRS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다름 수용 태도를 측정하고,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효과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치료자 변인 같은 제3의 효과를 배제하였으며, 이어지는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선후 관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IBCT의 이론적 입장에 대한 중요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격특성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격특성에 따라 다름 수용 태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신경증은 커플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신경증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다름 수용 태도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이어지는 순차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즉 신경증은 그 자체로 커플관계 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수용적 태도의 결여는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 사용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커플관계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단일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향성과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커플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성격특성이 다름 수용 태도 또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커플관계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쳤다. 구체적으로, 외향성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다름 수용 태도와 긍정적 갈등해결 전략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화성과 성실성의 경우, 다름 수용 태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순차 매개를 거쳐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각 성격특성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커플관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데 기여하는 면이 있다. 특히 그동안 외향성 및 개방성이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혼재된 결과를 보여왔는데(Eysenck, 1980; Karney & Bradbury, 1995; White et al., 2004), 본 연구 결과는 외향성과 개방성의 긍정적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외향성과 개방성은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타협하는 데 기여하며, 개방성은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매개분

석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다름 수용 척도와 친화성, 성실성,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성 및 여성 모두에서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성의 경우 다름 수용 태도의 추가적 설명량이 4.5%로 적었던 반면, 여성은 28.8%로 컸다. 또한, 남성의 경우 Big 5 성격특성 투입으로 인한 추가적 설명량이 27.7%로 컸던 반면, 여성은 6.8%로 적은 편이었고,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은 여성의 커플관계 만족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남성은 개인의 성격특성이 다름 수용 태도와 관련이 크며, 성격특성이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큰 반면, 여성은 성격특성이 다름 수용 태도와 큰 관련이 없으며, 성격특성이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다름 수용 태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같은 관계적 요소가 여성의 커플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독립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특성이 강한데 반해,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강하고, 타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Helgeson, 1994; Wood et al., 1989). 따라서 남성은 개인의 성격특성이 커플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큰 반면, 여성의 경우, 개인적 특성보다 파트너의 특성이나 관계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 면이 클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사회구조 이론의 관점에서는 남녀 간의 사회적 지위 및 권력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사회적 권력이 강한 남성은 관계에 덜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적게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여성은 파트너와의 관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크게 영향받는다(김아영, 조영주, 2018; 조영주, 2017; Thomas & Fletcher, 2003). IBCT에서도 전통적인 커플관계 내에서 대체로 남성이 기존의 관계 패턴을 유지하길 원하고, 여성은 상대적인 열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남성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된 바 있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따라서 상대방의 영향을 많이 받고,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다름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파트너에 대한 무리한 변화 시도를 내려놓고, 현재 관계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매개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성실성과 친화성은 다름 수용 태도를 매개로 하여 커플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신경증은 다름 수용 태도를 매개로 하여 커플관계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경우,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하여 커플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성격특성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성격특성의 영향이 강하고,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역할이 두드러지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 성격특성의 긍정적 영향이 강하고,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역할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커플관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사회화로 인하여, 남성이 커플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이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Frazier & Esterly, 1990; Hendrick & Hendrick, 1986). 시대 변화에 따라, 남녀의 성역할 구분이 줄어들면서 가정 내 역할분담이 평등해지고, 결혼만족도의 성차도 감소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양권 국가에서는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여전히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이 커플관계에서 정서적 욕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충족시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조영주, 2019; Jackson et al., 2014). 또한, 여성의 경우,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나 협력적인 문제해결이 결혼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거나, 남성은 이러한 상관이 낮게 나타나며, 명령을 내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의 의사소통 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Beam, 2018). 이러한 역할관계를 고려할 때, 신경증 같은 부정적 성격특성이 남성의 자기중심적이고 강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다름에 대한 수용을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성의 신경증과 지배적인 갈등해결전략은  $.29$  ( $p < .001$ ), 신경증과 다름 수용 태도는  $-.27$  ( $p = .001$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반면, 여성의 외향성, 개방성 같은 성격요소는 커플관계에서 여성의 친사회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사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시사된다. 한편, 여성에게서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여성의 성격특성과 다름 수용 태도의 상관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크더라도, 성격특성이 다름 수용 태도를 거쳐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

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할 때,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통계적 검정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고, 성격 특성 외에 여성의 다름 수용 태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미혼 집단의 경우 갈등해결전략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기혼 집단의 경우, 다름 수용 태도와 더불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효과도 유의하였다. 매개분석 결과, 미혼 집단의 경우,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가 두드러졌고, 기혼 집단에서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은 기혼 집단의 커플관계 만족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혼 커플의 경우, 미혼의 낭만적 연애 관계보다 다양한 요구와 불만족에 직면하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더 많이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한소영, 신회천, 2007). 그러나 기혼자들은 심한 갈등과 반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헤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갈등 상황에서 서로 타협과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역량이 미혼 집단에서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혼 집단과 기혼 집단의 갈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갈등 수준에 따른 상호작용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 집단과 기혼 집단으로 구분함에 따라, 표본 수가 줄어들어 매개효과를 정확히 관찰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으

므로 충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커플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을 할 때, 성격특성 및 성별, 결혼상태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접근을 취해야 효과적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향성이 두드러질 때에는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두드러질 때에는 갈등해결전략과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양방향적 접근이 가능할 것인데, 남성 및 미혼 집단에는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개입이, 여성 및 기혼 집단에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신경증적 특성이 두드러질 때에는 갈등해결전략보다는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개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Jacobson과 Christensen(1996)은 행동주의 접근의 주요 한계로,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춰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기술들을 훈련하더라도, 갈등 상황과 같이 정서적으로 각성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의식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에 취약하고, 대인관계 자극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McNulty, 2008; Miller et al., 2009). 이들은 갈등 상황에 직면하면, 부정적 정서에 쉽게 압도되어 자동 반사적으로 부적응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소지가 있고, 이에 긍정적 갈등해결 전략을 훈련한다고 해도 이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용 촉진 전략을 통해서, 서로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강화하는 접근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플관계 양상을 개

인적 차원에서만 분석함으로써 커플관계의 상호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다만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다름 수용 태도와 성격특성 같은 개인 내적 변인의 관계를 먼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개인차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커플관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쌍자료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및 커플관계 만족도를 비롯한 모든 측정도구가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이를 통해 다름 수용 태도 및 커플관계 기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주요 변인들에 대해 이자간 평정을 실시하여 자기보고와 파트너 지각 사이의 불일치 경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불일치가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커플치료를 받고 있거나 갈등 수준이 현저하게 높은 집단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추후에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교 검증을 통하여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 임상적 활용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다양한 성격특성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성격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개인 내에서 다양한 성격특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Big 5 성격특성도 여러 차원이 동시에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격 차원을 고려하여 프로파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 개입전략을 마련할 때에도 이러한 프로파일 접근이 더욱 유용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커플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개인의 경우, 과거 교제 대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떠

우리며 회고적으로 커플관계 만족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정확도가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 커플관계 유지 중인 사람들만 포함할 경우, 다름 수용 태도와 성격특성의 관계가 편향될 것을 우려하여, 커플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지만 교제 경험이 있는 개인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현재 커플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참여자의 수는 58 명으로, 커플관계 유지 중인 대상자( $n=242$ )에 비해 현격히 적은 편이었다. 이에 현재 커플 관계 유지 여부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회고적 보고에 따른 부정확성을 배제하고자, 커플관계 유지 중인 대상자만을 포함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및 매개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본 연구결과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커플관계 유지 여부의 영향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대상자 수를 확보하여 현재 커플관계 유지 여부 및 교제 기간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 과거 관계의 경우 헤어진 사유나 헤어진 이후의 경과 기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제작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를 활용하여,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와 성격특성 및 갈등해결전략, 커플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성격특성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커플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격은 생물학적 기반이 강하게 작용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특질에 해당하기에, 성격 자체를 변화시켜서 커플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격이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 전략의 상대적 효과와 매개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성격특성에 따른 특화된 접근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혜숙, 김영희 (2012). 부부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상담학연구*, 13(6), 2861-2880.
- 김경희 (2008). 애착,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아영, 조영주 (2018).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4), 567-588.
- 김정미 (2014). 부부의 성격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가족복지학*, 19(2), 299-320.
- 김중술, 조두영, 홍강의, 조수철, 신민섭, 류인균, 유성진 (2002). 부부치료의 새로운 접근. *인지행동치료*, 2(1), 1-13.
- 박명옥 (2008). 호텔종사자의 성격특성, 인상관리, 상사-부하 교환관계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미선 (2011). 성격유형에 따른 감성지능, 심리적 웰빙, 직무성과 간의 인과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63-184.
- 이석동 (2017). 골프장 캐디의 Big-Five 성격유형에 따른 고객 무례성 인지, 부정적 정서, 감정노동 및 소진과의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아영, 이훈진 (2020). IBCT에 기반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4), 599-632.
-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영주 (2017). 미혼 커플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서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417-443.
- 조영주 (2019). 부부의 자기보고 결혼만족 및 지각된 배우자의 결혼만족 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1), 67-85.
- 한소영, 신희천 (2007).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다집단 요인분석과 잠재평균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47-465.
- Aron, A., & Aron, E. N. (1986). *Love and the expansion of self: Understanding attraction and satisfaction*. Hemisphere Publishing Corp/Harper & Row Publishers
- Baucom, K. J., Baucom, B. R., & Christensen, A. (2015). Changes in dyadic communication during and after integrative and traditional

- behavioral couple therap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65, 18-28.
- Baucom, K. J., Sevier, M., Eldridge, K. A., Doss, B. D., & Christensen, A. (2011). Observed communication in couples two years after integrative and traditional behavioral couple therapy: outcome and link with five-year follow-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9(5), 565-576.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eam, C. R., Marcus, K., Turkheimer, E., & Emery, R. E. (2018). Gender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marital quality. *Behavior genetics*, 48(3), 209-223.
- Berger, R., & Hannah, M. (1999). *Handbook of preventive approaches in couple therapy*. Brunner/Mazel.
- Buss, D. M., & Shackelford, T. K. (1997). Susceptibility to infidelity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2), 193-221.
- Butrus, N., & Witenberg, R. T. (2013). Some personality predictors of tolerance to human diversity: The roles of openness, agreeableness, and empathy. *Australian Psychologist*, 48(4), 290-298.
- Christensen, A., Atkins, D. C., Yi, J., Baucom, D. H., & George, W. H. (2006). Couple and individual adjustment for 2 years following a randomized clinical trial comparing traditional versus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6), 1180-1191.
- Coleman, L., Mitcheson, J., & Lloyd, G. (2013). Couple relationships: Why are they important for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Visiting*, 1(3), 168-172.
- Costa, P. T., & McCrae, R. R. (1988). Personality in adulthood: a six-year longitudinal study of self-reports and spouse ratings on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53-863.
- Costa, P. T., & McCrae, R. R. (1992). *NEO 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ra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134(3), 337-341.
- Cunningham, M. R. (1988). Does happiness mean friendliness?: induced mood and hetero-sexual self-disclos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4(2), 283-297.
- Donnellan, M. B., Conger, R. D., & Bryant, C. M. (2004). The Big Five and enduring marriag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5), 481-504.
- Eysenck, H. J. (1980). Personality,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Psychological Reports*, 47(3\_suppl), 1235-1238.
- Finn, C., Mitte, K., & Neyer, F. J. (2013). The relationship specific interpretation bias mediates the link between neuroticism and satisfaction in coupl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7(2), 200-212.
- Finn, C., Mitte, K., & Neyer, F. J. (2015). Recent decreases in specific interpretation biases

- predict decreases in neuroticism: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with young adult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83(3), 274-286.
- Frazier, P. A., & Esterly, E. (1990). Correlates of relationship beliefs: Gender, relationship experie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3), 331-352.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 Hayes, A. F. (2013). PROCESS macro for SPSS and SAS (version 2.16.1)[Software].
- Hayes S. C., Jacobson, N. S., Follette, V., & Dougher, M. (1994). *Acceptance and Change in Psychotherapy*. Context Press.
- Hayes, S. C., Strosahl, K. D., & Wilson, K. G. (1999).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Guilford Press
- Helgeson, V. S.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12-428.
- Hendrick, C., & Hendrick,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392-402.
- Hong, J. (2004). *A comparison of Korean and U.S. American conflict management styles as related to communication apprehens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Illinois. USA.
- Jackson, J. B., Miller, R. B., Oka, M., & Henry, R. G. (2014).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A meta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1), 105-129.
- Jacobson, N. S., & Christensen, A. (1996). *Acceptance and change in couple therapy: A therapist's guide to transforming relationships*. W.W. Norton & Company.
- Johnson, W., McGue, M., & Krueger, R. F. (2005). Personality stability in late adulthood: A behavioral genetic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3(2), 523-552.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s,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1), 3-34.
- Kelly, E. L., & Conley, J. J. (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27-40.
- Lavee, Y., & Ben-Ari, A. (2004).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neuroticism: Do they predict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620-627.
-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Guilford Publications.
- Mairal, J. B. (2015).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IBCT) as a third-wave therapy. *Psicothema* 27(1), 13-18.
- Malouff, J. M., Thorsteinsson, E. B., Schutte, N. S., Bhullar, N., & Rooke, S. E. (2010).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intimate partners: A meta-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1), 124-127.
- McCrae, R. R. (1996). Social consequences of experiential openness. *Psychological Bulletin*,

- 1203), 323-337.
- McCrae, R. R., & Costa Jr, P. T. (1994). The stability of personality: Observations and evalua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3(6), 173-175.
- McNulty, J. K. (2008). Neuroticism and interpersonal negativity: The independent contributions of perceptions and behavi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1), 1439-1450.
- Miller, D. J., Vachon, D. D., & Lynam, D. R. (2009). Neuroticism, nega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instability: Establishing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using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8), 873-877.
- Park, H., & Antonioni, D. (2007). Personality, reciprocity, and strength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1), 110-125.
- Piedmont, R. L., McCrae, R. R., & Costa, P. T. (1991). Adjective Check List scales and the Five 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630-637.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2), 368-376.
- Sayehmiri, K., Kareem, K. I., Abdi, K., Dalvand, S., & Gheshlagh, R. G.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marital satisfac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C psychology*, 8(1), 15.
- Schaffhuser, K., Allemand, M., & Martin, M. (2014). Personality trait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intimate couples: Three perspectives on personal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8(2), 120-133.
- Schmitt, D. P. (2004). The Big Five related to risky sexual behaviour across 10 world regions: Differential personality associations of sexual promiscuity and relationship infidel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8(4), 301-319.
- Schmitt, D. P., & Buss, D. M. (2000). Sexual dimensions of person description: Beyond or subsumed by the Big F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2), 141-177.
- Schneewind, K. A., & Gerhard, A. K. (2002). Relationship personality,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he first 5 years of marriage. *Family Relations*, 51(1), 63-71.
- Segal, Z. V., Williams, M., & Teasdale, J. (2002).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Guilford Publications.
- Sevier, M., Atkins, D. C., Doss, B. D., & Christensen, A. (2015). Up and Down or Down and Up? The Process of Change in Constructive Couple Behavior during Traditional and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Journal of Marital Family Therapy*, 41(1), 113-127.
- Shackelford, T. K., Besser, A., & Goetz, A. T. (2008). Personality, marital satisfaction, and probability of marital infidelity.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6(1), 13-25.
- Solomon, B. C., & Jackson, J. J. (2014). Why do personality traits predict divorce? Multiple pathways through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6), 978-996.
- Strauss, J. P., Connerley, M. L., & Ammermann,

- P. A. (2003). The "threat hypothesis," personality, and attitudes toward diversity.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9(1), 32-52.
- Taggart, T. C., Bannon, S. M., & Hammett, J. E. (2019). Personality traits moderate the association between conflict resolution and subsequ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cou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9(1), 281-289.
- Thomas, G., & Fletcher, G. J. (2003). Mind-reading accuracy in intimate relationships: assessing the roles of the relationship, the target, and the ju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6), 1079-1094.
- White, J. K., Hendrick, S. S., & Hendrick, C. (2004, 2004/11/01/). Big five personality variables and relationship constru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7), 1519-1530.
- Wilmot, W. W., & Hocker, J. L. (2001). *Interpersonal Conflict* (6 ed.). New York: McGraw-Hill.
- Wood, V. E., & Bell, P. A. (2008). Predicting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styles from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2), 126-131.
- Wood, W., Rhodes, N., & Whelan, M. (1989). Sex differences in positive well-being: A consideration of emotional style and marit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06(2), 249-264
- Vater, A., & Schröder - Abé, M. (2015). Explaining the link between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Emotion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ur in conflict discussion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9(2), 201-215.

1차원고접수 : 2021. 07. 12.

심사통과접수 : 2021. 07. 23.

최종원고접수 : 2021. 09. 30.

## The mediating effect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Acceptance for Differenc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Ah Young Lim

Hoon-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ole of acceptance for difference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Big 5 personality traits and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s Scale (ADCRS) and other self-reporting scales were administered to 300 adults. The ADCR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penness,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and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neuroticism and nega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e ADCRS showed a stronger effec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a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e mediation roles of acceptance for difference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in the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different depending on personality traits. Also, the effect of personality traits on coupl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acceptance for differences were stronger in men than in women.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have been discussed.

*Key words* : *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s Scale, Big 5 Personality,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